

2014년 5월 12일_일기

밤새도록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과 스트레스로 잠이 늦게 들었다. 엄마는 아침 7시에 청소일을 하시러 나가시는데 그 때 제대로 깨서 인사도 못했다. 간신히 눈을 뜨니 오전 10시쯤 이었다. 일어나서 곧바로 컴퓨터를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질리도록 보고 다시 구직사이트에서 좋은 일자리가 있는지 보았다. 하지만 맨날 비슷한 일자리 뿐이다. 뭘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전문대를 나오고 편입까지 해서 4년제 대학에 갔는데 의지부족으로 창업에 실패하고 사회성 부족으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운 나는 적당한 직업을 찾지 못해 아직도 세상을 헤매고 있다. 내가 봐도 한심하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다니.....어릴 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살아 온게 후회스럽다.

언니는 며칠 밤을 새고 오더니 매일 잠만잔다. 자동차 검사를 이번주 안에 받아야 하는데 또 내일 받겠다고 미뤘다. 도대체 언니를 이해할 수 없다. 적어도 가족의 재산과 관계된 일들은 빨리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엉망진창이다. 언니방 만큼이나.....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일을 끝내고 오신 엄마가 참치김치찌개를 하셔서 점심을 먹고 엄마는 허리가 아프셔서 또 병원에 가셨다. 나는 계속 일자리를 알아본다는 명목하에 컴퓨터를 하고 언니는 자고 매일 이런 일상의 반복이다.

엄마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돈이 떨어지기 전에 꼭 공장이라도 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참 어렵고 힘들다. 정말 내일은 어디든 갈 각오로 면접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 휴...

오후 5시쯤 엄마가 오셨는데 나는 갑자기 왼쪽 가슴 위쪽이 아파서 꿈쩍도 못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결국 응급실에 갔고 엑스레이도 찍었다. 돈도 없는데 큰병이 아니라 다행이었다. 단순한 갈비뼈 사이의 근육통 이라고 약을 지어주셔서 먹었더니 안아파서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상황에 몸까지 아프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테니까...티브이에서 봤던 세모녀자살 사건이 우리 얘기가 될수도 있다. 차라리 죽는게 더 좋지만...

병원에서 어떤 변비환자 할머니를 봤는데 설사를 한게 바지 엉덩이 쪽에 그대로 묻어 있었고 횡설수설 하시는 모습이 참 안되 보였다. 그치만 나 또한 그 할머니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

오늘도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갔다. 나의 청춘중에 하루가 또 사라졌다. 소중한 시간을 나는 무덤덤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방금전에 행복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한가지 정해 보았는데 고양이 키우기로 했다. 반려동물을 키워본적이 없지만 앞으로 돈을 벌면 꼭 키울 것이다. 이것을 목표로 하면 광정이 힘들어도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꼭 그랬으면 좋겠다. 끝